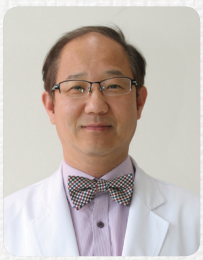
신축년(辛丑年), 소처럼 _____ 지치지 않는 방역과 개인위생이 절실합니다



김동일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회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모두 경험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휘청거린 한 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아울러 우리나라 감염병에 대한 예방의학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체계에서도 발생률이 미미하기는 하나 감염성질환인 C형간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에서도 감염성질환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 백명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식사하고 근로하는 중소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집단발병 사례가 없는 점은 철저한 사업장 방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된 이래 지금까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협의회 자체 분석으로는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이전 해에 비해 그리 많이 저조하지는 않은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영향일 수 있으며 본 협의회로서는 회원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새해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생후 14~35일 사이의 영유아검진의 추가, 우울증검사의 주기 변경, 결핵 확진검사 추가, 대장내시경 전처치 약제비 인정 등 작지만 우리 회원기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찰료의 현실화, 신체계측 비용의 미인정 등 인건비에 대한 검진기관의 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해당 관청은 검진기관 실사를 통하여 건강검진기관의 이중 수검, 입력 오류 등 단순 검진 업무 착오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의 행정처분 규정을 해마다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검진 인력의 현장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규정에 따른 주의사항 등, 규정을 위반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함으로써 검진비용 환수와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공격에 소처럼 지치지 않는 방역 및 개인위생으로 모든 검진기관의 안녕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